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대구 참여연대

공동대표/ 원유술김민남 주소/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번지 2층 전화(053)427-9780
전송/ 053)427-9723 홈페이지/ www.civilpower.org E-mail/ civilpower@hananet.net

문서번호 : 시민감시 02-01-30

시행일자 : 2002년 1월 30일

수 신 : 대구지역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국(담당: 권혁장 016-810-2851)

제 목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각종 추태사건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시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백의원을 징계처리하고, 2대 의혹사건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단행하라.!!

최종백 의원의 음주측정거부 및 입건사건, 모 시의원의 립싸롱에서의 성희롱과 폭력사건(의혹사건 1), 물품납부 요구 권력형 압력행사 사건(의혹사건 2), 몇몇 시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사건과 반도덕적 사건들이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의회는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를 살펴보면, 공익우선, 양심과 성실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래 몇몇 대구시의원의 추태는 이러한 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법을 바로 세워야 할 의회는 덮어두기에 급급하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시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주민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의식에 철저히 빠져있기 때문

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의식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특정정당의 공천권만을 따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반시민적 이기주의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나아가 특정정당 일색의 의원구성으로 내부 견제기능이 마비되고 왜곡된 동료의식의 팽배함에 그 원인이 있다.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대구시의회와 의원들의 이러한 작태는 지방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허무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시스템을 정당화하게 된다. 즉 지역사회를 죽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자정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구시의회는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을 덮어두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요구사항

- 대구시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최종백의원을 징계하라!
- 대구시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대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공개와 처벌을 단행하라!
- 대구광역시의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라!

2002년 1월 30일

대 구 참 여 연 대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대구 참여연대

공동대표/ 원유술김민남 주소/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번지 2층 전화(053)427-9780
전송/ 053)427-9723 홈페이지/ www.civilpower.org E-mail/ civilpower@hananet.net

문서번호 : 시민감시 02-01-02

시행일자 : 2002. 1. 30

수 신 : 대구시의회 의장

발 신 :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국

담 당 : 시민감시국장 권혁장

선결			지	
접 수	일자		시	
	시간		결	
	번호		재	
	처리과		·	
	담당자		공	
			람	

제 목 : 최근 대구광역시의원들의 추태와 비리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

1.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최종백의원의 음주측정거부 및 입건사건, 모 의원의 룬싸롱 성희롱 및 폭력사건, 모의원의 공사장 물품 납품 권력형 압력행사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대구참여연대 공개질의

○ 최종백의원 사건은 시의회의 명예실추, 의원자질에 대한 의심,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절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최종백의원을 징계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의회 의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모 시의원의 룬싸롱 행패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구체적 제보가 입수되었고, 정황상 사건의 당사자가 시의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의장님

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모 시의원의 공사장 물품납품 압력행사 의혹이 상당한 기간동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는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의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시의원의 추태와 비리의혹 등이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수립(예, 안양시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의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4. 구체적이고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성명서 1부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민남 · 원유술